

# 診家樞要에 대한 研究 I

金 憲, 朴 炅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 A Study on Gin Ga Chu Yo(診家樞要) I

Heon Kim, Kyung Park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tiy

**Background and purpose:** Gin Ga Chu Yo(診家樞要) was written in the year 1359 by Hwal Su(滑壽) who was a famous oriental doctor between Won(元) and Myeong(明) dynasty. As specialized in sphymology(脈學), this book was brought together most things about sphymology(脈學) before Won(元) dynasty by the author. Moreover he added the self-realized things to this book.

**Methods:** In this book, there are all 20 chapters; Chu Yo Hyeon Eon(樞要玄言), Jwa U Su Bae Jang Bu Bu Wi(左右手配臟腑部位), O Jang(五臟), Sa Si Peong Maek(四時平脈), Nae Gyeong Sam Bu Maek Beop(內經三部脈法), Ho Heup Chim Bu Jeong O Jang Beop(呼吸沈浮定五臟法), In Ji Ha Gyeong Jung I Jeong O Jang Beop(因指下輕重以定五臟法), Sam Bu So Ju(三部所主), Ji Maek Su Beop(持脈手法), Maek Gwi Yu Sin(脈貴有神), Maek Eum Yang Yu Seong(脈陰陽類成), Gyeom Hyeon Maek Ryu(兼見脈類), Je Maek Ui Gi Ryu(諸脈宜忌類), Heom Je Sa Jeung Ryu(驗諸死症類), Sa Jeol Maek Ryu(死絕脈類), O Jang Dong Ji Maek(五藏動止脈), Bu In Maek Beop(婦人脈法), So A Maek Beop(小兒脈法), Maek Sang Tong Hoe(脈象統會), Maek Sang Ga(脈象歌) and an epilogue in the end. This treatise is made up of principal, notes, study and conclusion, we tried to make a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Results and Conclusion:** Looking into this book, we can know that it is very detail in analyzing item by item, bright and simple in explaining and it is very useful in studying pulse evaluation(脈診). In his preface, Hwal Su(滑壽) expresses his opinion with firm confidence that "Do(道) of the World scattered in several scholarships and books of method and technique(方術). Nothing of method and technique(方術) is more important than medicine. Nothing of medicine goes before pulse evaluation(脈診)." With such good reasons, as a student of sphymology(脈學), I think this book is very valuable in studying pulse evaluation. So I add Hangul suffixes(吐) to a part of this book and translate it into Korean.

**Key Words:** Gin Ga Chu Yo, sphymology, pulse evaluation

### I. 緒論

『診家樞要』1卷은 元末 明初의 著名한 醫家인 滑壽가 著述하였으며, 대략 元 至正 19년(1359년)에 완성

된 책이다. 이 책은 오로지 脈法만을 논한 것으로, 作者가 元 나라 이전의 脈學을 會通하고 아울러 자신이 스스로 깨우쳐 心得하고 실제 임상에서 體得한 것을 結合하여 만들었다. 이 책은 「樞要玄言」, 「左右手配臟

- 접수 : 2005년 6월 13일 · 심사 : 2005년 7월 11일 · 채택 : 2005년 7월 16일
- 교신저자 : 박 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Tel. 063-850-6839 E-mail : yongjae@wonkwang.ac.kr

腑部位」, 「五臟」, 「四時平脈」, 「內經三部脈法」, 「呼吸沈浮定五臟法」, 「因指下輕重以定五臟法」, 「三部所主九候附」, 「持脈手法」, 「脈貴有神」, 「脈陰陽類成」, 「兼見脈類」, 「諸脈宜忌類」, 「驗諸死症類」, 「死絕脈類」, 「五藏動止脈」, 「婦人脈法」, 「小兒脈法」, 「脈象統會」, 「脈象歌」의 20篇과 「自序」, 「跋文」 2篇을 합하여 總 22篇으로 構成되어 있다.

脈은 『素問』, 『靈樞』, 『傷寒雜病論』, 『難經』, 『中藏經』 등에서 비롯하였고 王叔和는 『脈經』을 통해 脈에 대한 것을 모두 끌어 모았다. 하지만 『脈經』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집은 하였으나 정리되지 않아 임상 응용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後代 高陽生의 『脈訣』은 그 체계를 잡아 정리하여 암송하기 쉽고 간결하여 臨床醫들에게 널리 읽히고 쓰이게 된다. 『脈訣』이 실용적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오류가 많고 문장이 천박하다 하여 여러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崔嘉彦이나 滑壽 같은 醫家들이 그 오류를 비판하면서 이런 서적을 내놓아 후세 醫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醫學入門』의 「診脈」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滑壽의 『診家樞要』는 중요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책 자체도 條目 하나하나 明確하게 分析하고 簡單明瞭하면서도 要點이 있어서 매우 實用的인 면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診家樞要』에 대한 研究나 國譯된 자료를 현재까지 접해보지 못하고 있는 後代 醫學에 要點 정리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되어 책의 一部를 校勘하여 吐와 註釋을 달고 國譯하였다.

## II. 研究 方法 및 資料

1. 본 論文은 滑壽의 『診家樞要』를 研究한 것으로 滑壽의 生涯와 著述 및 醫學思想과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2. 原文은 中華民國 11年(1922年)에 上海의 上海廣益書局에서 編하고 癸丑文化社에서 影印한 『正校名醫指掌』에 附錄되어 있는 『訂補名醫指掌附刻診家樞要』

를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수용하였다. 原書에는 長洲의 念山 邵從臯가 校訂하고 金陵의 狷宇 唐鯉飛가 梓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校勘은 아래 <表 1>의 文獻을 涉獵하였다.

4. 한 篇 가운데 내용이 複合되어 연속되지 않는 것은 章名과 節名을 붙여 나누었다.

5. 懸吐는 傳來의 方法을 원적으로 하였다.

6.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여 國譯하였다.

7. 國譯은 필요에 따라 註釋의 내용을 참고하여 意譯하였다.

8. 본 研究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 註釋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로 표시하였다.

## III. 滑壽의 生涯와 著述 및 醫學思想

### 第1篇 滑壽의 略史와 著述

滑壽에 대하여 『歷代中醫名著文庫』의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에 있는 『診家樞要』의 「點校說明」, 洪元植·尹暢烈의 『中國醫學史』와 成輔社의 『東洋醫學大辭典』을 참고하여 소개한다.

滑壽의 字는 伯仁이고 晚號는 攬寧生이다. 본적은 河南 襄城이나 뒤에 江蘇 儀眞과 浙江 餘姚로 옮겼다. 元 大德 8年(1304年)에 태어나서 明 洪武 19年(1386年)에卒했다. 『浙江通志』 및 『紹興府治』에 明初의 功臣 劉基의 兄이라 했으니, 姓名을 바꾸어서 醫學을 전공하였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聰明하고 好學하여 詩文에 능하였고 少時에 舉子試에 應試하기도 했다. 醫學을 배우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京口의 名醫인 王居中에게 배우면서 『素問』, 『難經』, 『傷寒論』 등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했으며, 그 뒤에 東平 高洞陽을 따라 鍼法을 배워 모두 이론 바가 있어 大匠이 되었다. 당시에 神醫로서 所聞이 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 生死를 決定해야만 遺恨이 없었다고 한다. 또 史書에도 “江蘇와 浙江 地域에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編著者	書名	略稱	備考
1	上海廣益書局	訂補名醫指掌附刻診家樞要	底本	正校名醫指掌, 癸丑文化社, 서울, 1922
2	蔣力生劉春援	診家樞要	蔣劉本	醫經病原診法名著集成, 歷代中醫名著文庫, 華夏出版社, 北京, 1997
3	滑壽	診家樞要	周本	蔣劉本 再引用
4	滑壽	診家樞要	餘本	餘顯廷, 脈理存真, 蔣劉本 再引用
5	新校正本	靈樞經	靈樞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 臺北, 1972
6	新校正本	素問經	素問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 臺北, 1992
7	何大任 校	脈經	脈經	東洋醫學善本叢書,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8	凌耀星	難經校注	難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9	華佗	中藏經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5
10	王好古	此事難知	此事難知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91
11	張介賓	景岳全書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12	李梴	編註醫學入門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櫻寧生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의 著述은 무척 많은데 이 『診家樞要』를 제외하고도 『讀素問鈔』, 『難經本義』, 『傷寒例鈔』, 『醫韻』, 『十四經發揮』, 『本草發揮』, 『滑氏脈訣』, 『五臟補瀉心要』 등이 있다. 『讀素問鈔』는 총 3卷으로 『素問』을 臟象·經度·脈候·攝生·論治·色脈·鍼刺·陰陽·標本·運氣·滙萃 등의 12類로 나누어서 鈔錄하여 閱讀에 편하게 한 것이다. 『難經本義』는 총 2卷으로 『難經』의 原書에 文字가 漏落되고 編次가 뒤섞인 곳이 있으며 歷代 註釋本들도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여겨, 元代 이전의 名家의 註釋을 모으고 관련 醫書를 參考하여 다시 자기의 意見으로 折衷한 것인데, 뜻을 解釋할 때 諸家의 說을 잘 融合하고 아울러 자신의 見解도 결합하여 『難經』의 意義에 대해서 闡發한 것이다. 이 두 책은 이후 『素問』과 『難經』의 研究에 상당한 影響을 주었다. 『十四經發揮』는 현재 鍼灸를 學習하는 것의 本보기가 되었는데, 그는 “사람 몸 奇經八脈 가운데 六脈은 비록 모두 다른 經絡에 系屬되어 있으나 유독 督脈과 任脈 二經은 腹部와 背部에 包含되어 專屬되

는 經穴이 있다. 여러 經脈이 차서 넘치면 任脈과 督脈이 그것을 받아두니 마땅히 十二經과 같이 논하여야 한다.”고 認識하여 督任 二脈과 十二經을 합하여 十四經으로 構成했다. 아울러 『內經』에 기술된 經脈 俞穴에 根據하여 考證을 가하여 647개의 穴位를 分別하여 十四經中에 歸屬시켰다. 이로부터 全身의 俞穴과 經絡의 關係는 완전히 固定되었다. 이렇듯 滑壽의 著書 중에 『十四經發揮』가 가장 著名하며 影響도 역시 제일 컸다.

특히 『診家樞要』에는 30가지 脈象을 陰陽 對待 性質에 따라 對照 比較하면서 浮·沈·遲·數·滑·澀 六脈을 脈의 提綱으로 삼고 脈은 ‘樞要’와 ‘統會’의 簡明함과 ‘陰陽’과 ‘表裏’의 對待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高陽生이 말한 七表·八裏·九道의 煩雜함에 대해 批判하고 있다. 또한 上·下·來·去·至·止 등의 指法 등 獨창적인 견해도 밝히고 있어 後世 脈學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 第2篇 診家樞要的 書誌學的 考察

『診家樞要』에 대하여 『歷代中醫名著文庫』의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에 있는 『診家樞要』의 「點校說明」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診家樞要』는 만들어진 뒤로 그 傳本이 드물었다. 현재 알려진 最古本은 明 弘治 17년 甲子(1504년)의 古絳韓 重刻本으로 현재 中國中醫研究院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그 다음은 明 天啓 2년 壬戌(1622년)의 『名醫指掌·雷公藥性賦解』와 合刻本이다. 이 이후 300餘年間 市中에는 더 이상 翻刻되지 않아 거의 전하지 않았다. 清代 光緒 元年 乙亥(1875년)에 이르러 婺源의 餘顯廷이 어떤 書店에서 한 板本을 얻었는데, 이것을 校訂해서 『脈理存眞』 上卷을 編輯할 때 收錄하여 1876년에 刊行하였다. 光緒 24年 戊戌(1898년)에 池陽의 周學海가 여기에 批評과 註釋을 달고 거기에 『諸脈條辨』(程觀泉의 『醫述』에 나온다.)과 『持脈總論』(『土材三書·診家正眼』에 나온다.) 二篇을 附錄으로 하여 이 책의 내용을 더욱 充實하게 한 뒤 『周氏醫學叢書』 二集 속에 包含하여 刊行하였다. 이 이외에 『古今醫學會通』, 『中西醫學群書』, 『醫學十種』 등의 叢書 속에 이 책이 收錄되어 있다. 中國 共產 革命 이후 1958년에 上海衛生出版社와 1959년에 上海科技衛生出版社가 따로따로 『周氏醫學叢書』의 影印本을 出版하였다.

#### IV. 研究 內容

##### 攬寧生(1)自序1)

###### 【原文】

天下之事는 統(2)之에 有宗(3)하고 會(4)之에 有元(5)하면 言簡而盡하고 事覈(6)而當하나니 斯爲至(7)矣라 天下之道가 散於百家(8)하야 流於方書(9)하니 方技(10)之流(11)는 莫大於醫요 醫之要(3)는 莫先於脈이라 浮沈之不同과 遲數之異狀(4)을 曰陰曰陽 曰表曰裏는 抑(12)亦以對待(13)로 而爲名象焉이니 有名象도 斯亦(5)統會矣라 高陽生(14)之七表八裏九道(15)는 蓋鑿鑿(16)也

나 求脈之明이 爲脈之晦(17)니 識者는 無取焉(6)이라 或者 曰 脈之道는 大矣요 古人之言도 亦夥(18)矣니 猶懼弗及이라 하나 而欲以此統會로 該(19)之면 不亦(7)太簡乎아 嗚呼라 脈(8)之理에 而名象著(20)焉하고 統會(21)焉이니 觀其統會(9)하야 以知其典禮(22)는 君子之能事也라 由是而推之 則泝(23)流窮源하야 因此識彼하나니 諸家之全에 亦無遺珠之憾(24)矣리라

至正(25) 甲辰(26) 端月(27)에 許昌(28) 滑壽 伯(10) 仁은 識(11)(29)하노라

###### 【校勘】

- 1) 攬寧生自序; 蔣劉本에는 없다.
- 2) 天下之道, 散於百家, 流於方書, 方技之流; 蔣劉本에는 ‘百家者流’로 되어 있다.
- 3) 醫之要; 蔣劉本에는 ‘醫’로 되어 있다.
- 4) 異狀; 蔣劉本에는 ‘反類’로 되어 있다. 遲脈과 數脈은 相反되므로 ‘反類’가 더 합당한 것 같아 國譯은 이를 따른다.
- 5) 斯亦; 蔣劉本에는 ‘而有’로 되어 있다.
- 6) 識者無取焉; 蔣劉本에는 없다.
- 7) 亦; 蔣劉本에는 ‘既’로 되어 있다.
- 8) 脈; 蔣劉本에는 앞에 ‘至微者’라고 되어 있다.
- 9) 統會; 蔣劉本에는 ‘會通’으로 되어 있다.
- 10) 伯; 底本에는 없다. 跋文을 따라 고쳤다.
- 11) 至正甲辰端月許昌滑壽伯仁識; 蔣劉本에는 없다.

###### 【註釋】

(1) 攬寧生(영녕생); 滑壽의 晚號 \* 攬寧(영녕); 마음이 항상 조용하고 편안하여 外物에 의하여 혼란되지 아니함 \* 攬, 亂也, 어지러울 영 \* 寧也, 편안할 영 \* 寧也, 편안할 영

- (2) 統; 系統, 이을 통
- (3) 宗; 本也, 밑 중, 밑 등 중
- (4) 會; 合也, 모을 회
- (5) 元; 始也, 으뜸 원
- (6) 覈; 驗也, 사실을 조사하여 밝힐 핵
- (7) 至; 極也, 지극할 지

(8) 百家(백가); 여러 학자. 儒家의 正系 이외에 一家의 說을 세운 많은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諸子百家, 春秋戰國時代의 學者와 學說을 말한다.

(9) 方書(방서); 方術의 책

(10) 方技(방기); 方伎, 方術. 醫術도 그 속에 포함된다.

(11) 流; 九流類, 무리 유

(12) 抑; 轉語亦然之辭, 또한 억

(13) 對待(대대); 상대적인 상황에 처하다. 상대적이다.

(14) 高陽生(고양생); 六朝人(혹은 宋代人이라 함.)으로 王叔和 이름을 假託하여 『脈訣』이란 책을 만들었다.

(15) 七表八裏九道(칠표팔리구도); 脈象 분류의 하나. 『脈訣』에서 24脈을 七表·八裏·九道 세 종류로 나누었다. 七表란 浮·芤·滑·實·弦·緊·洪의 일곱 가지 脈이다. 八裏란 微·沈·緩·濡·遲·伏·濡·弱의 여덟 가지 脈이다. 九道란 長·短·虛·促·結·代·牢·動·細의 아홉 가지 脈이다.

(16) 鑿鑿(착착); 議論이 정확한 모양, 조리가 닿는 모양 \* 鑿, 論理明確貌, 論理가 정확하고 조리가 닿는 모양 착

(17) 晦; 昧也, 어둠 회

(18) 夥; 多也, 많을 과

(19) 該; 備也, 갖추 헤

(20) 著; 黏也, 달라붙을 착

(21) 寓; 寄也, 붙일 우, 붙여 살 우

(22) 典禮(전례); 일정한 儀式

(23) 沂; 逆流而上曰沂洄, 거슬러 올라갈 소

(24) 遺珠之憾(유주지감); 遺珠之歎, 마땅히 등용되어야 할 사람이 빠져서 한탄하는 일

(25) 至正(지정); 元 나라 1341~1368년의 年號

(26) 甲辰(갑진); 1364년. 元 나라 至正 24년. 跋文을 보면 滑壽가 至正 己亥인 1359년에 記錄했다고 되어 있다. 아마도 滑壽가 『診家樞要』를 1359년에 완성하고 이 序文은 5년 뒤인 1364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27) 端月(단월); 正月의 別稱

(28) 許昌(허창); 河南省의 縣 이름, 魏 나라의 都邑地

(29) 識; 與誌同, 記也, 기록할지

### 【國譯】

天下의 事物은 統括(統)할 때에 根本(宗)이 있고 모을(會) 때에 우두머리(元)가 있으면 그 말이 簡潔하나 뜻을 다할 수 있고 그 일을 밝혀도 마땅하니 이렇게 되면 至極한 것이 된다. 天下의 道가 百家로 흩어져 方術의 책으로 흘러들어갔으니 여러 方士의 技術이 醫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醫의 核心이 脈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浮沈의 같지 않은 것과 遲數이 서로 반대되는 무리를 陰이라고도 하고 陽이라고도 하며 表라고도 하고 裏라고도 하는 것은 또한 對待의 性質으로 이름하고 形象한 것이요 이름과 形象 自體가 또한 統會일 따름이다. 高陽生의 七表·八裏·九道는 대개 질서정연한 것 같으나 脈을 밝히려는 것이 脈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니 아는 사람은 이를 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脈의 이치는 크고 옛사람들의 말 또한 많으니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렵다.”고 하나 이렇듯 統會로 갖추면 또한 아주 簡單하지 않겠는가? 아하! 脈의 理致에 이름과 形象이 달라붙어 있고 統會가 붙어 있으니 그 統會를 살펴서 그 典禮를 아는 것은 君子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 本源을 찾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을 알게 되니 모든 醫學家 전체에 또한 遺珠하는 遺憾이 없을 것이다.

至正 甲辰年 正月에 許昌의 滑壽 伯仁이 삼가 쓰노라.

### 【考察】

滑壽는 元末 明初의 醫學家였다. 六朝人 高陽生이 지은 『脈訣』이 宋代 이후부터 크게 유행되어 “『脈訣』이 나오고 『脈經』이 숨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滑壽가 살았던 당시에도 『脈訣』의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데, 이 책은 『脈經』의 主要內容을 實際

臨床에 결합하여 簡明하고 要點적인 것만 뽑아 歌訣로 만든 것으로 臨床醫가 기억하고 응용하는데 편리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의 文字가 淺陋하다고 批判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24種의 脈象을 七表·八裏·九道の 三類로 나누어 역시 많은 사람들의 論難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脈象을 表裏 등의 病變과 직접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陳言, 朱肱 등의 著作中에는 이러한 分類가 引用되고 있다.

元代的 戴啓宗도 그의 著書 『脈訣刊誤』에 “脈은 表裏로 이름을 정할 수 없다. 오로지 浮沈 二脈만이 表裏로 논할 수 있다. 黃帝·岐伯·秦越人·仲景·王叔和 모두 表裏를 말하지 않았다. 王叔和의 著作인 『脈經』에도 七表·八裏·九道の 이름이 있지 않으나 지금의 『脈訣』이 王叔和의 이름을 依託하고는 그 脈을 논한 것은 도리어 『脈經』과 어긋나고 있다. 六朝 以來로 七表·八裏·九道가 世上을 크게 迷惑시키고 있으나 그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다. 王裳은 『闡微論』을 지어 『脈訣』은 表만 논하고 裏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脈의 形狀에 대해서는 發明한 바가 크다.”고 하고는 表裏에 이르러서는 그 잘못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脈訣에 拘碍되어 數長 二脈을 늘려 九表라 하고 短細 二脈을 더해 또 十裏라고 하고는 九와 十으로 陰陽數의 至極함이 되었다고 하였다. 아하. 脈의 變化는 진실로 陰에서부터 陽이 나는데, 그런데 어찌 名稱과 숫자로서 拘碍되겠는가. 從來에 脈을 논할 때 浮·沈·長·短·滑·濇으로 三陰三陽으로 한 것도 있고 大·小·滑·濇·浮·沈으로 구별한 것도 있고 仲景은 大·浮·數·動·滑을 陽으로 하고 沈·澁·弱·弦·微를 陰으로 한 것이 있고 尺·寸·關의 浮·沈·滑·濇으로 病이 생겨난 바를 알아내 治療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陰陽의 對待를 들어 서로 보이는 것이지 일찍이 七表·八裏·九道를 말한 것이 아니다. 또 단지 七表·八裏·九道만이 진실로 脈의 數를 다할 수 있겠는가? 『內經』에서 鼓라 하고 搏이라 하고 喘이라 하고 橫이라 하고 急이라 하고 躁라 하였고 仲景은 僕·卑·高·章·綱·損이라 하고

縱·橫·逆·順이라 하였으니 어찌 七表·八裏·九道가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름이 비록 다르지만 실체는 陰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脈은 陰陽으로 모양을 살피는 것은 마땅하나 表裏로 이름을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內經』에 ‘脈이 陰陽에 附屬한다.’고 하였고 또 ‘診察을 잘 하는 자는 色을 살피고 診脈을 하여 먼저 陰陽을 區別한다.’고 하였다. 여러 脈 가운데 浮 部分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表라고 하지 七表에 拘碍되지 않으며 여러 脈이 沈 部分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裏라고 하지 八裏에 拘碍되지 않는다. 沈하면서 滑하면 또한 裏라 하고 浮하면서 濇하면 또한 表라 한다.<sup>1)</sup>”고 하여 脈은 陰陽의 對待만 있을 뿐이지 表裏로 무리하게 이름을 지을 수 없으며 단지 浮 部分에 나오는 脈은 浮脈, 裏 部分에 나오는 脈은 裏脈으로 할 수 있다며 批判하고 있다.

李時珍도 『脈訣攷證』의 ‘七表八裏九道之非’에 위의 戴啓宗의 說을 따라 高陽生의 七表八裏九道說은 잘못 되었다고 批判하고 滑壽가 “脈의 陰陽과 表裏는 對待로서 이름하고 形象한다. 高陽生의 七表·八裏·九道는 대개 질서정연한 것 같으나 脈을 밝히려는 것이 脈을 더욱 어둡게 만든 것이다.<sup>2)</sup>”고 한 것을 인용하여 滑壽와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sup>3)</sup>

1) “脈不可以表裏定名也。惟浮沈二脈，可以表裏論。黃岐越人仲景叔和，皆不言表裏。脈經王氏所作，無七表八裏九道之名，今脈訣，託叔和之名，其論脈，却悖於脈經。自六朝以來，以七表八裏九道，爲世人惑，未有言其非者。王裳，著闡微論，謂脈訣論表不及裏，於脈之形狀，大有發明。至於表裏，則不言其非，尚拘拘增數長二脈，爲九表，加短細二脈，又爲十裏，以九與十，爲陰陽數之極。嗚呼！脈之變化，固從陰陽生，然安可以名數拘哉。從來論脈，有以浮沈長短滑濇，爲三陰三陽者，有以按尺寸關浮沈滑濇，而知病所生以治者，是皆以陰陽對舉，而互見也。未嘗云七表八裏九道也。但七表八裏九道，果可以盡脈數乎。內經曰鼓，曰搏，曰喘，曰橫，曰急，曰躁，仲景曰僕卑高章綱損，曰縱橫逆順，豈七表八裏九道之能盡也。然其名雖異，實不出乎陰陽。故脈當以陰陽察形，不當以表裏定名。內經曰脈合陰陽，又曰善診者察色按脈，先別陰陽。諸脈因浮而見者，皆云表，不拘於七表。諸脈因沈而見者，皆曰裏，不拘於八裏。沈而滑，亦曰裏，浮而濇，亦曰表。”

戴啓宗：脈訣刊誤，楊家駱主編，增補珍本醫書集成，世界書局，1961, p.1172

2) “脈之陰陽表裏，以對待而爲名象也。高陽生之七表八裏九道，皆鑿鑿也，求脈之明，爲脈之晦。”

3) 朴晃：國譯瀕湖脈學·四言學要·奇經八脈攷附脈訣攷證，大星文化

## 第1篇 樞要(1)玄言(1)(2)

## 【原文】

脈者는 氣血之先(3)也니 氣血盛則脈盛하고 氣血衰則脈衰하고 氣血熱則脈數하고 氣血寒則脈遲하고 氣血微則脈弱하고 氣血平則脈治(4)라 又長人은 脈長하고 短人은 脈短하고 性急人은 脈急하고 性緩人은 脈緩이라 左大는 順(5)男하고 右人은 順(5)女요 男子尺脈은 常弱하고 女子尺脈은 常盛이라 此(2)其常也니 反之者는 逆(5)3이라 其五臟四時之不同과 陰陽變見之或異에 吉凶死生이 於是乎(6)著矣라 樞素(7)諸家에 彰彰(8)明備니 摭(9)其切近(10)精實者하야 爲診家樞要(4)라

## 【校勘】

- 1) 樞要玄言; 蔣劉本에는 ‘脈象大旨’로 되어 있다.
- 2) 此; 蔣劉本에는 뒤에 ‘皆’字이 있는데, 그 뜻이 더 낫다.
- 3) 脈者氣血之先 …… 反之者逆; 『中藏經』卷上「脈要論 第十」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中藏經』에는 “脈者, 乃氣血之先也. 氣血盛則脈盛, 氣血衰則脈衰, 氣血熱則脈數, 氣血寒則脈遲, 氣血微則脈弱, 氣血平則脈緩. 又長人脈長, 短人脈短, 趙寫本起性急則脈急. 性急則脈急, 性緩則脈緩. 反此者逆, 順此者從也.”라고 되어 있다.
- 4) 其五臟四時之不同 …… 爲診家樞要; 蔣劉本에는 없다.

## 【註釋】

- (1) 樞要(추요); 가장 요긴하고 중요로움
- (2) 玄言(현언); 심오한 말 \* 玄; 理之微妙者爲玄, 심오한 도리 현, 현묘한 진리 현
- (3) 先; 前導<sup>5)</sup>. 先驅, 앞장설 선
- (4) 脈治(맥치); 脈象이 정상적이라는 뜻이다. 『中藏

經』卷上「脈要論 第十」에는 ‘脈緩’으로 되어 있는데, 平人의 정상적인 脈象에 和緩한 緩脈이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면 서로 참고할 만하겠다. \* 治; 平定, 평정할 치

(5) 順, 逆(순, 역); 본래 順은 順證으로 病情이 일반적인 規律대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症狀이 호전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말하고, 逆은 逆證으로 病情이 일반적인 발전 規律을 따르지 않고 갑자기 가증되는 症候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뜻한다. \* 順; 理也, 도리에 따를 순

(6) 於是乎(어시호); 連詞로서 뒷일이 앞일과 긴밀하게 이어짐을 나타내고 아래 구의 첫머리나 주어 뒤에 쓰인다. ‘於是焉’과 같다.

(7) 樞素(추소); 『內經』의 『靈樞』와 『素問』이다.

(8) 彰彰(장창); 밝은 모양, 뚜렷한 모양 \* 彰; 明也, 밝을 창

(9) 摭; 取也, 취할 척

(10) 切近(절근); 아주 가까움

## 【國譯】

脈의 形成은 氣血이 먼저 運行해야 하는 것이니, 氣血이 旺盛하면 脈도 旺盛하고 氣血이 衰殘하면 脈도 衰殘하고 氣血이 뜨거우면 脈도 數하고 氣血이 차가우면 脈도 遲하고 氣血이 微弱하면 脈은 微弱하고 氣血이 調和되면 脈도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또 키 큰 사람은 脈도 長하고 키 작은 사람은 脈도 短하고 性質이 急한 사람은 脈도 急하고 性質이 緩慢한 사람은 脈도 緩하다. 왼손 脈이 大한 것은 男子에게 正常이고 오른손 脈이 大한 것은 女子에게 正常이고 男子는 尺脈이 항상 微弱하고 女子는 尺脈이 항상 旺盛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正常的인 것이니 이와 다른 것은 逆證이다. 五臟과 四時에 따라 다른 것과 陰과 陽으로 변하여 나타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吉凶과 死生도 이를 따라 나타난다. 『靈樞』·『素問』 등 諸家 醫書에 脈法에 관한 내용이 뚜렷하고 밝게 具備되어 있으니 가장 精密하고 實際的인 것을 취하여 診家樞要를 만들었다.

社, 서울, 1992, p.210

4) 華佗;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5, p.9

5) 華佗;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5, p.9

【考察】

人體의 脈象은 體質·年齡·環境 등에 따라 千差萬別하므로 『脈經』을 비롯한 『醫學入門』 및 『診家樞要』에서 男女 脈象의 차이를 논한 것은 하나의 標準일 뿐 一定不變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四診을 모두 종합해야 한다.

第2篇 左右手配臟腑部位

【原文】

左手寸口(1)에 心小腸脈이 所出하고 左關에 肝膽脈이 所出하고 左尺에 腎膀胱脈이 所出(1)이요 右手寸口に 肺大腸脈이 所出하고 右關에 脾胃脈이 所出하고 右尺에 命門心胞絡(2)三焦脈이 所出이라

【校勘】

- 1) 出; 蔣劉本에는 뒤에 작은 글자로 ‘命門與腎脈通’이라고 되어 있다.
- 2) 心胞絡; 蔣劉本에는 이 文句 대신 작은 글자로 ‘心包絡手心主’라고 되어 있다.

【註釋】

(1) 寸口(손구); 양손 桡骨頭의 內側, 桡骨動脈의 診脈 部位를 말한다. ‘氣口’ 혹은 ‘脈口’라고도 한다.

【國譯】

왼손 寸部에서 心·小腸脈이 나오고 왼쪽 關部에서 肝·膽脈이 나오고 왼쪽 尺部에서 腎·膀胱脈이 나오고 오른손 寸部에서 肺·大腸脈이 나오고 오른쪽 關部에서 脾·胃脈이 나오고 오른쪽 尺部에서 命門·心胞絡·三焦脈이 나온다.

【考察】

寸·關·尺 三部의 左右 相克과 臟腑經脈의 配屬關係는 『素問·脈要精微論篇』과 『難經·十八難』에서 그 효시를 이루고 『脈經』은 이 理論을 계승하여 발전시

켜 左右 寸關尺에 臟腑를 配屬하였는데 『脈經』 卷一 「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 第三」과 「兩手六脈所主五藏六腑陰陽逆順 第七」 등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가장 論難이 되는 것은 三焦의 配屬 문제인데, 『醫學入門』에서 “三焦는 일정한 脈의 위치가 없어서 오직 右尺에서 浮取하여 診脈하되 呼吸으로 그 것의 虛實을 살핀다. 숨을 내설 때에 脈이 2번 搏動하면 心肺가 있는 上焦에 邪氣가 가벼운 것이고, 들이마실 때 脈이 2번 搏動하면 肝腎이 있는 下焦에 邪氣가 가벼운 것이고, 呼吸하는 사이에 1번 搏動하면 脾胃가 있는 中焦에 邪氣가 가벼운 것이다. ‘선배들은 浮部에서 上焦를 취하여 心肺脈에 합하고, 中部에서 中焦를 취하여 脾胃脈에 합하고, 沈部에서 下焦를 취하여 肝腎脈에 합하여 보아 합치되지 않으면 氣가 亂動된 것이므로 반드시 다시 診脈을 한다.’고 하였고, ‘다만 右尺部에 3가지 脈이 있으니 浮 部分은 三焦가 되고, 약간 沈 部分은 心胞絡이 되고, 沈 部分은 命門이 된다.’고 하였으나, 呼吸하는 사이에 脈搏의 數로 이것을 취하는 것만은 못하다.”<sup>6)</sup>고 한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第3篇 五臟(1)

【原文】

心脈은 浮(1)大而散하고 肺脈은 浮澁而短하고 肝脈은 弦而長하고 脾脈은 緩而大하고 腎脈은 沈而軟滑이라 素問에 心平脈은 累累(2)如連珠하야 如循(3)琅玕(4)이라 하니 此는 長滑之象也라 心은 爲肝子로 脈不離弦하니 故仲景이 謂心脈은 洪大而長이요 肺脈은 澁短하니 是動力不盛하고 而形體鋪(5)寬(6)也(2)라

心은 合(7)血脈하니 心脈은 循血脈而行이라 持脈(8)指法에 如六菽(9)之重으로 按(10)至(11)血脈而得者가 爲浮요 稍稍(12)加力하야 脈道粗(13)者는 爲大요 又稍

6) “三焦無位，惟浮診，以呼吸，審其虛實，呼出二至，則心肺上焦邪輕，吸入二至，則肝腎下焦邪輕，呼吸之間一至，則脾胃中焦邪輕。先輩有以浮取上焦，合心肺脈，中取中焦，合脾胃脈，沈取下焦，合肝腎脈，不合則氣亂，須再切之，但右尺有三脈，浮爲三焦，略沈爲胞絡，沈爲命門，不若以呼吸間取之。”  
李樞：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大星文化社，서울，1990，p.420



加力하여 脈道闊(14)軟者是 爲散이라

肺는 合皮毛하니 肺脈은 循皮毛而行이라 持脈指法에 如三菽之重으로 按至皮毛而得者는 爲浮요 稍稍加力하여 脈道不利(15)면 爲澁이요 又稍加力하여 不及本位를 曰短(3)이라

肝은 合筋하니 肝脈은 循筋而行이라 持脈指法에 如十二菽之重으로 按至筋하여 而脈道如箏(16)弦相似는 爲弦이요 次稍加力하여 脈道迢迢(17)者는 爲長이라

脾는 合肌肉하니 脾脈은 循肌肉而行이라 持脈指法에 如九菽之重으로 按至肌肉하여 如微風에 輕颺(18)柳梢之狀은 爲緩이요 次稍加力하여 脈道敦實(19)者는 爲大라

腎은 合骨하니 腎脈은 循骨而行이라 持脈指法에 按至骨上而得者는 爲沈이요 次重而按之하여 脈道無力은 爲濡(5)요 擧(20)指(6)하여 來(21)疾(22)流利(23)者는 爲滑이라

凡此五臟平脈은 要須察之니 久久成熟하면 一遇病脈에 自然可曉(24)라 經(25)에 曰 先識經脈(26)而後識病脈이라 하니 此之謂也(7)라

#### 【校勘】

1) 五臟; 蔣劉本에는 ‘五臟平脈’으로 되어 있는데, 本文의 내용에 더 합당한 것 같다.

2) 心平脈 …… 而形體鋪寬也; 蔣劉本에 작은 글자로 된 註釋이다. 본문 이해를 위해 삽입하였다.

3) 短; 蔣劉本에는 뒤에 작은 글자로 “澁只是來勢不勇, 短只是寬軟不挺”이라고 되어 있다.

4) 實; 底本에 ‘寔’로 되어 있는데, 寔은 實의 俗字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5) 濡; 蔣劉本에는 뒤에 작은 글자로 “濡是脈體之柔潤, 非脈應指無力也.”라고 되어 있다.

6) 指; 蔣劉本에 餘本에는 “止”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7) 凡此五臟平脈 …… 此之謂也; 蔣劉本에는 뒤에 작은 글자로 “五臟平脈·病脈·死脈, 『素問』 「玉機眞藏」·「平人氣象」兩篇, 言之至詳且密. 此文所敘, 乃從『難經』錄出, 其義未全.”이라고 되어 있다.

#### 【註釋】

(1) 浮; 이하 모든 脈의 體狀에 대한 說明은 뒤 「脈陰陽類成」에 자세히 나오므로 생략한다.

(2) 累累(누루); 물건이 이어 나가는 모양

(3) 循; 摩循, 어루만질 순

(4) 琅玕(낭간); 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

(5) 鋪; 布也, 베풀 포

(6) 寬; 裕也, 너그러운 관. 寬大, 넓은 관. 徐也, 緩也, 급하지 않을 관

(7) 合; 配也, 짝 합

(8) 持脈(지맥); 脈을 짚어 보는 것이다. 『難經校注』에 “『說文·手部』에 ‘持는 잡는다는 뜻이다.’고 하였다. ‘握脈’에서 ‘按脈’, ‘把脈’, ‘切脈’이 派生되었다.”고 하였다.

(9) 菽(숙); 콩(豆)이다. 『難經校注』에 “豆는 古代에 무게를 測定하는 單位였다. 『說苑·辨物』에 ‘黍 16이 1豆이고, 豆 6이 1銖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診脈할 때 손가락 힘의 輕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菽; 衆豆之總稱, 콩 숙

(10) 按(안); ‘按’은 診脈할 때에 손가락 힘을 무겁게 하여 筋骨 사이를 눌러보는 방법으로 ‘沈取’ 또는 ‘重取’라고도 한다.

(11) 至(지); ‘至’는 脈氣가 感應되는 것이다.

(12) 稍稍(초초); 점점, 차차로 \* 稍; 出物有漸, 稍稍, 漸也, 점점 초

(13) 粗; 麤通, 物不精, 거칠 추

(14) 闊; 廣也, 넓은 활

(15) 利; 滑密, 미끄러울 이

(16) 箏; 鼓絃, 竹身樂, 쟁 쟁. 人箏과 비슷한 열석 줄(옛날에는 열두 줄)로 된 현악기

(17) 迢迢(초초); 먼 모양. 이곳에서는 긴 모양을 말하는 것 같다. \* 迢; 迢邐, 멀 초

(18) 颺; 凡風動物, 如物受風搖曳者, 皆謂之颺, 흔들릴 점, 바람에 요동하는 모양 점

7) “『說文·手部』 ‘持握也.’ 握脈引伸爲按脈, 把脈, 切脈.”  
凌耀星;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9

8) “十六黍爲一豆, 六豆爲一銖.”

(19) 孰實; \* 孰; 何也, 어느 속. 歲稔, 익을 속 \* 實; 滿也, 充也, 虛之對, 찰 실. 物成實, 익을 실

(20) 擧(거); ‘擧’는 손가락을 가볍게 하여 皮膚위를 눌러보는 방법으로 ‘浮取’ 또는 ‘輕取’라고도 한다.

(21) 來(래); 脈氣가 骨肉에서 皮膚로 나오는 것으로 氣가 上昇하는 것이고 表가 된다.

(22) 疾; 急也, 빠를 질

(23) 流利(유리); 막힘이 없다. 미끈하다.

(24) 曉; 知也, 깨달을 효

(25) 經(경); 未詳

(26) 經脈(경맥); 正常脈. 『脈語』를 보면 “經脈이란 正常脈이니 平常人의 病이 없는 脈이다.”<sup>9)</sup>고 되어 있다.

#### 【國譯】

心脈은 浮大하면서 散하고 肺脈은 浮澁하면서 短하고 肝脈은 弦하면서 長하고 脾脈은 緩하면서 大하고 腎脈은 沈하면서 軟滑하다. 『素問·平人氣象論』에 心의 正常脈은 꿰어놓은 구슬처럼 이어져서 琅玕을 이루만지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하니, 이는 長滑한 모양이다. 心은 肝의 子가 되어 그 脈이 弦과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仲景이 心脈은 洪大하면 長하다고 했다. 肺脈은 澁短하니, 이는 搏動의 힘이 세차지 않고 형체가 넓게 확 퍼지는 것이다.

心은 血脈과 配合되니 心脈은 血脈을 따라 運行된다. 脈 잡는 方法에 六菽 무게로 血脈에 닿게 눌러 잡은 것이 浮脈이 되고, 조금씩 힘을 더하여 脈道가 거친 것이 大脈이 되고, 또 조금 더 힘을 더하여 脈道가 넓으면서 유연한 것이 散脈이 된다.

肺는 皮毛와 配合되니 肺脈은 皮毛를 따라 運行된다. 脈 잡는 方法에 三菽 무게로 皮毛에 닿게 눌러 잡은 것이 浮脈이 되고, 조금씩 힘을 더하여 脈道가 매끄럽지 않으면 澁脈이 되고, 또 조금 힘을 더하여 본래 位置에 미치지 못한 것을 短脈이라 한다.

肝은 筋과 配合되니 肝脈은 筋을 따라 運行된다.

脈 잡는 方法에 十二菽 무게로 筋에 닿게 눌러서 脈道가 마치 箏弦과 비슷한 것은 弦脈이 되고, 다음에 조금 힘을 더해 脈道가 멀리 나가는 것은 長脈이 된다.

脾는 肌肉과 配合되니 脾脈은 肌肉을 따라 運行된다. 脈 잡는 方法에 九菽 무게로 肌肉에 닿게 눌러 마치 가벼운 바람에 버들가지가 흔들리는 모양과 같으면 緩脈이 되고, 다음에 조금 힘을 더하여 脈道가 가득 찬 것은 大脈이 된다.

腎은 骨과 配合되니 腎脈은 骨을 따라 運行된다. 脈 잡는 方法에 뼈 위에 닿게 눌러 잡은 것이 沈脈이 되고, 다음에 더욱 힘주어 눌러 脈道가 無力하면 濡脈이 되고, 손가락을 들어 脈이 오는 것이 빠르고 미끄러운 것은 滑脈이 된다.

이상의 모든 五臟의 平脈은 반드시 살피야 하니 오래도록 익히면 病脈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經』에 이르기를 “먼저 正常脈을 안 뒤에 病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 【考察】

本篇의 典據는 찾을 수 없다. 다만 五臟의 正常脈에 대하여 『素問』의 『平人氣象論』과 『玉機眞藏論』, 『難經·四難』 등에서 비롯되었는데, 本篇도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散脈은 모이지 않는 脈으로 생명이 장차 붕괴된다.”<sup>10)</sup>고 하여 본래 散脈은 죽는 脈이다. 그런데 왜 心肺의 平脈에 나오는가? 李梴은 “혹 물기를 散脈은 죽는 脈인데 어째서 心肺의 正常脈이 모두 浮하면서 散한가? 心은 浮大한 가운데 濡를 띠고, 肺는 浮澁한 가운데 大를 띠어 散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眞散脈이 나타난다면 어찌 平常脈이 되겠는가? 다만 散을 띠지 않으면 또한 夏秋의 眞藏脈이 된다.”<sup>11)</sup>고 하

10) “散脈不聚命將崩, 到此無由得再生.”

李梴;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403

11) “或問, 散, 乃敗脈, 何心肺平脈皆浮而散耶. 盖心浮大中帶濡, 肺浮澁中帶大, 有似於散耳. 若眞散, 豈爲平脈. 但不帶散則又爲眞夏秋脈矣.”

9) “經脈者, 常脈也, 平人無病之脈也.”

朴晳 等; 譯釋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17

였는데 타당한 설명으로 생각된다.

診脈할 때 손가락 힘의 強弱 기준이 菽 즉 콩(豆)이다. 『難經校注』에 “豆는 古代에 무게를 測定하는 單位였다.”고 하고 黍 16이 1豆이고, 豆 6이 1銖라고 하였다.

菽을 이용한 方法은 『難經』에서 비롯되는데 「五難」을 보면 “脈에 輕重이 있다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다. 처음 脈을 짚을 때 三菽 무게로 눌러 皮毛에서 感觸되는 脈象은 肺部脈이다. 六菽 무게로 血脈에서 感觸되는 脈象은 心部脈이다. 九菽 무게로 눌러 肌肉에서 感觸되는 脈象은 脾部脈이다. 十二菽 무게로 눌러 筋과 같은 程度로 感觸되는 脈象은 肝部脈이다. 뼈에 닿도록 눌렀다가 손가락을 들었을 때 脈이 빠르게 搏動하는 脈象은 腎部脈이다. 그러므로 輕重이라고 이른다.”<sup>12)</sup>고 하여 그 효시를 이룬다. 그 뒤 『傷寒論·平脈法』에도 “물어 보기를, 經에서 脈에 三菽, 六菽 무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스승이 답하기를, 脈에 사람이 손가락을 눌러서 三菽 무게와 같은 것은 肺氣이다. 六菽 무게와 같은 것은 心氣이다. 九菽 무게와 같은 것은 脾氣이다. 十二菽 무게와 같은 것은 肝氣이다. 누르면 뼈에 닿는 것은 腎氣이다.”<sup>13)</sup>고 하였으며 『脈經』卷二 「持脈輕重法」에도 「五難」의 내용을 그대로 引用하고 있다. 『難經』, 『傷寒論』, 『脈經』의 큰 특징은 三菽·六菽·九菽·十二菽과 누르면 뼈에 닿을 정도의 힘의 순서가 體表인 皮毛에서 血脈·肌肉·筋·骨 까지 점점 깊이 들어가고 또 그 相승이 되는 五臟의 순서도 가장 위에 있는 肺에서 心·脾·肝·腎 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醫學入門』은 『難經·五難』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脈에는 輕重이 있다. 左寸에서 먼저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小腸脈이고, 뒤에 六菽 무게로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心脈이다. 左關에서 먼저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膽脈이고, 뒤에 十二菽 무게로 눌러서 잡히는 것은 肝脈이다. 左尺에서 먼저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膀胱脈이고, 뒤에 十五菽 무게로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腎脈이다. 右寸에서 먼저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大腸脈이고, 뒤에 三菽 무게로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肺脈이다. 右關에서 먼저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胃脈이고, 뒤에 九菽 무게로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脾脈이다. 右尺에서 먼저 가볍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三焦脈이고, 뒤에 十五菽 무게로 무겁게 눌러서 잡히는 것은 命門脈이다.”<sup>14)</sup>고 하여 左右 寸·關·尺 三部를 기준하여 輕取하였을 때 腑脈, 重取했을 때 臟脈을 잡는다고 細分하였고 臟脈을 잡을 때 그 기준은 『難經』, 『傷寒論』, 『脈經』과 동일하다. 하지만 左右 尺脈의 腎과 命門의 指力의 경우는 ‘뼈에 닿도록’이 아닌 ‘十五菽 무게’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가장 가벼운 肺脈의 三菽부터 점점 三菽씩 늘어간 것을 보고 추정한 것 같다.

#### 第4篇 四時平脈

##### 【原文】

春弦 夏洪 秋毛(1) 冬石(2)이요 長夏四季脈(3)은 遲緩이라

##### 【註釋】

李樾: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386

12) “脈有輕重, 何謂也? 然. 初持脈,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舉指來疾者, 腎部也. 故曰輕重也.”

凌耀星: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879

13) “問曰: 經說脈有二菽, 六菽重者, 何謂也. 師曰: 脈者, 人以指按之, 如三菽之重者, 肺氣也. 如六菽之重者, 心氣也. 如九菽之重者, 脾氣也. 如十二菽之重者, 肝氣也. 按之至骨者, 腎氣也.”

張仲景: 仲景全書, 裕昌德書店, 臺北, 1930, p.58

14) “脈有輕重. 如左寸, 先以輕手得之, 是小腸, 後重手如六菽之重得之, 是心. 左關, 先以輕手得之, 是膽, 後以重十二菽取之, 是肝. 左尺, 先以輕手得之, 是膀胱, 後重手如十五菽之重取之, 是腎. 右寸, 先以輕手得之, 是大腸, 後以重手如三菽之重得之, 是肺. 右關, 先以輕手得之, 是胃, 後重手如九菽之重得之, 是脾. 右尺, 先以輕手得之, 是三焦, 後以重手如十五菽之重取之, 是命門.”

李樾: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406-407

(1) 毛(모); 毛脈. 濼脈을 달리 표현한 脈象이다.

(2) 石(석); 石脈. 沈脈의 古名이다. 營脈과 石脈은 沈脈과 같은 脈象이다.

(3) 長夏四季脈; 脾土에 속하는 長夏와 각 季節 마지막 달인 辰·戌·丑월에 나타나는 正常脈이다. \* 長夏(장하); 陰曆 6월을 가리킨다. \* 四季(사계); 陰曆 三·六·九·十二月

【國譯】

春에는 弦, 夏에는 洪, 秋에는 毛, 冬에는 石하고 長夏와 四季에는 遲緩한 것이 平脈이다.

【考察】

四時의 正常脈에 관해서는 『素問』의 「玉機眞藏論」과 「平人氣象論」, 『難經·十五難』, 『脈經』 卷三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第5篇 內經三部脈法1)

【原文】

脈要精微論에 云 尺內(1)兩傍은 則季脇(2)也니 兩傍은 謂內外側也라 尺外(3)로 以候(4)腎하고 尺裏(5)로 以候腹中이라 ○ 附上(6)의 附上은 如越人(7)이 所定關中이라 左外(8)로 以候肝하고 內(8)로 以候膈하며 右外로 以候胃하고 內로 以候脾라 ○ 上附上(9)의 上附上은 如越人이 所定寸口(2)라 右外로 以候肺하고 內로 以候胸中하며 左外로 以候心하고 內로 以候臍中이라 臍中은 在胸前而乳間이라 前(10)以候前(10)하고 後(10)以候後(10)라 上竟上(3)(11)者는 胸喉中事也요 下竟下(12)者는 小(4)腹腰股(5)脛足中事也라

【校勘】

1) 內經三部脈法; 蔣劉本에는 本篇이 없다.

2) 寸口; 底本에는 ‘十日’로 되어 있다. 앞의 附上의 註에 “附上은 越人이 指定한 關中과 같다.”고 註釋한 것이 있기 때문에, 上附上은 關中の 위인 寸口를 가리

키는 것이니 ‘十日’은 ‘寸口’의 誤字이므로 고쳤다.

3) 上; 底本에는 ‘下’로 되어 있고 『素問·脈要精微論篇』에는 ‘上’으로 되어 있는데 誤字이므로 고쳤다.

4) 小; 『脈要精微論篇』에는 ‘少’로 되어 있다.

5) 股; 『脈要精微論篇』에는 뒤에 ‘膝’字가 있다.

【註釋】

(1) 尺內(척내); 王冰은 “尺內는 尺澤의 안쪽을 말한다.15)”고 註解하였으나 王叔和는 『脈經』에서 “寸에서 尺까지를 尺澤이라고 한다.16)”고 하여 寸口脈의 後半部를 가리키는 있고, 馬蒔는 “尺內는 左右의 尺部이다.17)”고 하였고, 張介賓은 “關前을 寸, 關後를 尺이라 하기 때문에 尺內라고 한 것이다.18)”고 하여 尺이란 寸關尺 三部의 尺部라고 말하고 있다. 丹波元簡은 “분명히 尺은 곧 팔뚝 안쪽 一尺에 해당되는 部分으로 寸關尺의 尺이 결코 아니다. 寸口를 寸關尺 三部로 나누는 것은 『難經』에서 비롯하였고 馬氏·張氏 등 여러 醫家들이 寸關尺의 尺으로 解釋하였으나 經書의 뜻과 어긋난다.19)”고 하였고, 張燦瑛 等은 丹波元簡의 說을 따라서 “尺內는 尺澤 部分의 안쪽이다. 尺 이것은 尺澤 部分을 가리키는 것으로 尺膚를 診察하는 것에 屬한다.20)”고 하여 이때의 尺은 寸關尺의 尺部가 아닌 一尺에 해당되는 前腕部 안쪽을 가리킨다고 主張하고 있다.

15) “尺內, 謂尺澤之內也. 兩傍, 謂尺之外側也. 季脇近腎, 尺主之, 故尺內兩傍, 則季脇也.”  
王冰;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p.152  
16) “從魚際, 至高骨, 却行一寸, 其中名曰寸口. 從寸至尺, 名曰尺澤, 故曰尺寸. 寸後尺前, 名曰關.”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研究所, 大阪, 1981, p.4  
17) “尺內者, 左右尺部也.”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注釋 中 黃帝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174  
18) “尺內者, 關前曰寸, 關後曰尺, 故曰尺內.”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97  
19)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 寸口分寸關尺三部, 昉于難經, 馬蒔諸家, 以寸關尺之尺釋之, 與經旨差矣.”  
丹波元簡; 素問識·素問紹識·靈樞識·難經疏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12  
20) “尺內, 指尺澤部的內側. 尺, 此指尺澤部, 屬於診尺膚的部位.”  
張燦瑛 等; 黃帝內經素問校釋(上冊),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237



큰손은 秋·冬·西·北·後·內가 된다. 左寸口은 곧 人迎이니 前이라 하고 前에서 살피는 것은 모두 胸部의 앞인 膺部와 膻中の 病이다. 右寸口은 곧 氣口이니 後라 하고 後에서 살피는 것은 모두 胸部의 뒤인 背部와 氣管의 病이다.<sup>37)</sup>”고 하여 前後를 左手와 右手로 해석하였으나, 張志聰은 “……, 寸은 陽, 尺은 陰이 되기 때문에 양 손 關前으로 形身の 前部, 關後로 形身の 後部를 살핀다.<sup>38)</sup>”고 하였고 張介賓도 “統括해서 말하면 寸은 前, 尺은 後가 된다. 나누어 말하면 上半部는 前, 下半部는 後가 된다. 대개 上部로 上部를 살피고 下部로 下部를 살핀다는 것을 말한다.<sup>39)</sup>”고 하여 關前과 關後로 설명하였다. 王琦 등은 “寸關尺 三部脈을 診察할 때 손가락을 손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여 조금씩 옮겨가며 누르면 前이라고 稱하고 人體의 前半面을 살피며, 손가락을 팔뚝 쪽으로 향하게 하여 조금씩 옮겨가며 누르면 後라고 稱하고 人體의 後半面을 살핀다.<sup>40)</sup>”고 하였다. 또 팔뚝의 陰經과 陽經이 흐르는 部分으로 說明하기도 하는데, 丹波元簡, 張燦理 등은 “前은 팔뚝 안쪽 陰經이 흐르는 部分이고 後는 팔뚝 바깥쪽 陽經이 흐르는 部分이다.<sup>41)</sup>”고 說明한다.

(11) 上竟上, 下竟下(상경상, 하경하); 王冰은 “上竟上은 魚際에 이르고, 下竟下는 尺部 脈의 搏動이 끝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sup>42)</sup>”고 하였고, 楊維傑은 “竟은

끝난다는 뜻이다. 上竟上은 上段의 맨 끝이니 魚際 部分이며, 下竟下는 下段의 맨 끝이니 尺部가 끝나는 곳이다.<sup>43)</sup>”고 하였고, 王琦 등은 “上竟上은 寸部の 위이고 …… 下竟下는 尺部の 아래이다.<sup>44)</sup>”고 하였다. 馬蒔는 “脈을 밀어 올라가는 것은 尺部에서 寸部에 이르는 것이니 곧 上竟上이고 胸部와 喉中の 病을 살피는 것이다. 脈을 밀어 내려가는 것은 寸部에서 尺部에 이르는 것이니 곧 下竟下이고 少腹·腰·股·膝·脛·足中の 病을 살피는 것이다.<sup>45)</sup>”고 하였다. 張志聰은 “上竟上은 尺部와 關部에서 곧바로 魚際로 올라간 것이다. 下竟下는 寸部와 關部에서 곧바로 尺部로 내려간 것이다. 身體의 半以上은 天, 身體의 半以下는 地에 해당되니, 이 또한 陰陽의 氣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身體의 上下의 病을 살피는 것이다.<sup>46)</sup>”고 하였다. 張介賓은 “脈이 올라간 가장 위쪽은 魚際에서 다한다. …… 脈이 내려간 가장 아래쪽은 尺部에서 다한다.<sup>47)</sup>”고 하였다. 張燦理 등은 “上竟上은 尺膚 上段의 魚際에 이르는 것이고 下竟下는 尺膚 下段의 肘關節 橫紋處에 이르는 것이다.<sup>48)</sup>”고 하였다.

王冰: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p.152

43) “竟, 盡也. 上竟上, 上段之盡端, 卽魚際部; 下竟下, 下段之盡端, 卽盡於尺部.”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臺北, 1984, p.142

44) “上竟上是寸上 …… 下竟下是尺下.”

王琦(外四名):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p.92

45) “凡脈推而升之, 謂自尺而寸, 乃上竟上也, 所以候胸與喉中之事. 凡脈推而下之, 謂自寸而尺, 乃下竟下也, 所以候少腹腰股膝脛足中之事.”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注釋 中 黃帝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174

46) “上竟上者, 從尺關而直上于魚也. 下竟下者, 從寸關而直下于尺也. 夫身半以上爲天, 身半以下爲地. 此又以陰陽之氣, 竟上竟下, 而候形身之上下.”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注釋 中 黃帝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175

47) “上而盡於上, 在脈則盡於魚際. …… 下而盡於下, 在脈則盡於尺部.”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98

48) “上竟上者, 當指尺膚部上段直達魚際處; 下竟下者, 當指尺膚部下段直達肘橫紋處.”

張燦理 等: 黃帝內經素問校釋(上冊),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237

37) “大抵人身之脈, 左手爲春爲夏, 爲東爲南, 爲前爲外, 右手爲秋爲冬, 爲西爲北, 爲後爲內. 左之寸口, 卽人迎也, 名曰前, 前之所候, 皆胸之前膺, 及膻中之事. 右之寸口, 卽氣口也, 名曰後, 後之所候, 皆胸之後背, 及氣管之事.”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注釋 中 黃帝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174

38) “前曰廣明, 後曰太沖, 寸爲陽, 尺爲陰, 故以兩手關前以候形身之前, 關後以候形身之後.”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注釋 中 黃帝素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175

39) “統而言之, 寸爲前, 尺爲後. 分而言之, 上半部爲前, 下半部爲後. 蓋言上以候上, 下以候下也.”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98

40) “按寸關尺三部脈時, 手指向掌側稍移按之, 稱爲前, 以候人體之前半面; 以手指向背側稍移按之, 稱爲後, 以候人體之後半面.”

王琦(外四名):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p.90

41) “前者, 臂內陰經之分也; 後者, 臂外陽經之分也.”

丹波元簡: 素問識·素問紹識·靈樞識·難經疏證,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12

42) “上竟上, 至魚際也; 下竟下, 謂盡尺之脈動處也.”

## 【國譯】

『脈要精微論』에 “尺內 兩傍은 季脇과 相應하는 部位이니 兩傍은 內外側을 이른다. 尺外로 腎을, 尺裏로 腹中을 살핀다. ○ 附上의 附上은 越인이 指定한 關中과 같다. 左外로 肝을, 內로 膈中을, 右外로 胃를, 內로 脾를 살핀다. ○ 上附上의 上附上은 越인이 指定한 寸口와 같다. 右外로 肺를, 內로 胸中을, 左外로 心을, 內로 膻中을 膻中은 앞가슴 양 乳間에 있다. 살핀다. 前으로 身體의 前半部를, 後로 身體의 後半部를 살핀다. 上竟上은 胸·喉中の 病을 살피는 곳이고 下竟下는 小腹·腰·股·脛·足中の 病을 살피는 곳이다.

## 【考察】

本篇은 역대 醫家들의 說이 分分하여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診脈의 대상 부위가 寸關尺의 寸口脈에 한하는가 아니면 寸口脈을 포함하여 肘關節까지의 尺膚를 上中下 三段으로 나눠 診察하는 法으로 說明하는가이다. 馬蒔, 張志聰, 張介賓, 楊維傑, 王琦 등은 寸關尺에 한해서 보고 있으나, 丹波元簡과 張燦理 등은 後者를 主張한다. 王冰의 註釋이 가장 먼저이지만 그 解釋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것 같다.

둘째 內外의 문제이다. 張志聰은 寸口에서 小指側을 內, 拇指側을 外로 보았고 丹波元簡은 尺膚에서 小指側을 內, 拇指側을 外로 보았다. 張介賓은 이상의 설명에 대해 비판하면서 寸關尺 각 部位마다 손바닥 쪽 前半部를 外, 팔꿈치 쪽 後半部를 內로 보았다. 그의 대부분 醫家들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浮取를 外, 沈取를 內라고 보는 것 같고, 張介賓도 “本篇의 外內 두 글자를 살펴보니 여러 醫家들의 註釋에 모두 內側과 外側을 말하고 있다. 무릇 內外側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脈의 形體가 납작하고 넓어야 하거나 두 가닥이 있는 것은 가능하다. …… 또 浮取를 外, 沈取를 內라고 한 것도 있는데 뜻에 있어서는 역시 통하니 모두 明哲한 者가 올바른 判斷을 해주기를 기다린다.”<sup>49)</sup>고 하여 그러한 說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셋째 前後의 문제이다. 王冰과 馬蒔는 左手를 前, 右手를 後로 보았다. 張志聰과 張介賓은 關前의 寸部를 前, 關後의 尺部를 後로 보았는데, 滑壽는 「十四難」 ‘前人後小’, ‘前小後大’의 註釋에서 “前後는 寸尺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十五難」의 ‘前曲後居’의 前後와 같은 것으로 脈象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sup>50)</sup>라고 하여 前後는 寸尺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여기에 張介賓은 內外에 대한 本人의 說明과 類似하게 나누어 보면 上半部를 前, 下半部를 後라고 하였고 王琦 등도 이와 비슷한 說明을 하고 있다. 또 丹波元簡과 張燦理 등은 尺膚에서 陽經이 흐르는 바깥쪽을 後, 陰經이 흐르는 안쪽을 前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그 異論이 다양하여 누구의 說明이 타당한지는 알기 어렵다.

## 第6篇 呼吸沈浮定五臟法1)

(呼吸과 浮沈으로 五臟의 脈을 決定하는 方法)

## 【原文】

呼出은 心與肺요 吸入은 腎與肝이요 呼吸之間에 脾受穀味하니 其脈在中이라 心肺俱浮나 浮而大散者는 心이요 浮而短澁者는 肺<sup>2)</sup>라 腎肝俱沈이나 牢而長<sup>3)</sup>者는 肝이요 濡而來實者는 腎이라 脾爲中州<sup>1)</sup>니 其脈在中이라

## 【校勘】

- 1) 法; 蔣劉本에는 “脈”으로 되어 있다.
- 2) 肺; 底本에는 “而”로 되어 있고 『難經·四難』·蔣劉本에는 “肺”로 되어 있는데, 「四難」을 따라 고친다.
- 3) 長; 底本에는 “腎”로 되어 있고 『難經·四難』·蔣

49) “又按本篇外內二字, 諸家之註, 皆云內側外側. 夫口內外側者, 必脈形扁闊, 而或有兩條者乃可. …… 又有以浮取爲外, 沈取爲內者, 於義亦通, 均俟明者辨正.”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98

50) “前後非言寸尺, 猶十五難前曲後居之前後, 以始末言也.”  
滑壽: 難經本義, 集文書局, 臺北, 1982, p.60

劉本에는 ‘長’으로 되어 있는데, 『四難』을 따라 고친다.

【註釋】

(1) 中州(중주); 地勢와 相應하는 臟腑이다. 『靈樞·九針論』에 “六腑와 膈膜 아래의 三臟은 모두 中宮과 相應한다.”고 하였고, 『難經·四難』에 “脾는 中州이다.”고 하였다.<sup>51)</sup>

【國譯】

내 쉬는 것은 心과 肺가 관여하고 들이마시는 것은 腎과 肝이 관여한다. 呼吸하는 사이에 脾氣가는 穀味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있으니 그 脈은 가운데에 있다. 心肺의 脈은 모두 浮하나, 浮하면서 大散한 것은 心脈이고 浮하면서 短澁한 것은 肺脈이다. 腎肝의 脈은 모두 沈하나, 牢하면서 長한 것은 肝脈이고, 濡하면서 脈이 實하게 오는 것은 腎脈이다. 脾는 中州가 되니 그 脈은 가운데에 있다.

【考察】

本篇은 『難經·四難』에서 拔萃 引用하였다.

第7篇 因指下輕重以定五臟法<sup>1)</sup>

(손가락 힘의 輕重에 따라 五臟을 決定하는 方法)

【原文】

卽前所謂三菽五菽菽之重也라

【校勘】

- 1) 法; 蔣劉本에는 없다.
- 2) 五; 蔣劉本에는 ‘六’으로 되어 있다.

【國譯】

곧 앞에서 三菽·五菽 등 指力의 무게를 말한 것이다.

第8篇 三部所主 九候附

【原文】

寸은 爲陽이요 爲上部니 主頭項以下로 至心胸之分也라 關은 爲陰陽之中이요 爲中部니 主臍腹腰1)脇之分也라 尺은 爲陰이요 爲下部니 主腰足脛股之分也라 凡此三部之中에 每部에 各有浮中沈三候하니 三三2)爲九候也라 浮主皮膚하야 候表及腑하고 中主肌肉하야 以候胃氣(1)하고 沈主筋骨하야 候裏及臟也라

【校勘】

- 1) 腰; 蔣劉本에는 ‘肱’로 되어 있다. 뒤 尺部에 ‘腰’가 있으니 ‘肱’가 옳은 것 같아 國譯은 蔣劉本을 따랐다.
- 2) 三三; 蔣劉本에는 ‘三而三之’로 되어 있다.

【註釋】

(1) 胃氣(위기); 脾胃의 機能은 脈象에서 反映되는데, 즉 和緩流利한 脈象을 가리킨다.

【國譯】

寸은 陽으로 人體의 上部에 해당되니 頭項 이하에서 心胸에 이르는 部分의 病을 主宰한다. 關은 陰인 尺과 陽인 寸의 가운데에 있어서 人體의 中部에 해당되니 臍·腹·肱·脇 部分의 病을 主宰한다. 尺은 陰으로 人體의 下部에 해당되니 腰·足·脛·股 部分의 病을 主宰한다. 모든 이 寸關尺 三部 가운데 각 部分마다 浮·中·沈 三候가 있으니 三部에 三候가 있어 九候가 된다. 浮는 皮膚를 主管하여 表部와 六腑의 病을 살피고 中은 肌肉을 主管하여 胃氣를 살피고 沈은 筋骨을 主管하여 裏部와 五臟의 病을 살핀다.

【考察】

本篇은 寸關尺의 三部九候를 설명하는 것으로 앞의 『素問·三部九候論篇』에서 三部나 九候의 名稱이 나오면서 頭(上)·手(中)·足(下)의 搏動處를 모두 이용하는 遍診法과 다르다.

本篇은 『難經』 「二難」을 引用하였으나 寸·關·尺의 名稱만 개시하였고 그 位置와 範圍에 대한 說明은

51)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2, p.2129



빠져있으며, 「十八難」의 三部九候를 拔萃引用하고 있다.

本篇을 살펴보면 滑壽는 「二難」과 「十八難」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寸·關·尺 三部에 대한 설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十八難」의 三部의 설명은 오히려 寸·關·尺 자체에 대한 說明이지 寸·關·尺 각 部位의 浮·中·沈 三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에 未洽하다. 이에 滑壽는 本篇에서 寸·關·尺 三部의 主治에 대해서 인체의 上中下에 따른 主治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뒤의 「兼見脈類」에서 “모든 浮脈, 모든 緊脈, 모든 沈脈, 모든 弦脈, 모든 遲脈, 모든 澁脈이 만약 寸口에 있다면 膈膜 이상의 病이고, 關中에 있다면 胝 이하의 病이고, 寸內에 있다면 배꼽 이하의 病이다.”<sup>52)</sup>고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浮·中·沈 三候에 대하여는 「十八難」과는 약간 다른데, 浮·中·沈에 따라 皮膚·肌肉·筋骨 순으로 病의 깊이를 말하고 表裏·臟腑·胃氣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점에서 「二難」과 「十八難」을 더욱 발전시킨 說明이라고 볼 수 있다.

### 第9篇 脈貴有神<sup>1)</sup>

(脈에는 神이 있어야 한다.)

#### 【原文】

東垣<sup>1)</sup>이云<sup>2)</sup> 不病之脈은 不求<sup>3)</sup>其神이니 而神無不在也라 有病之脈則當求其神之有無라 謂컨대 如六數七極<sup>4)</sup>은 熱也나 脈中 此中字는 浮中沈之中이라 有力 言有胃氣라 卽有神矣니 爲泄<sup>5)</sup>其熱이라 三遲二敗는 寒也나 脈中有力 說并<sup>6)</sup>如前<sup>2)</sup>이라 卽有神矣니 爲去其寒이라 若數極遲敗<sup>7)</sup>中에 不復有力이면 爲無神<sup>3)</sup>이니 將何所恃耶<sup>4)</sup>아 苟不知此하고 而遽泄之去之면 人<sup>5)</sup>將何以<sup>6)</sup>依而主<sup>7)</sup>耶아 故로 經<sup>7)</sup>에 曰 脈者는 氣血之先也<sup>8)</sup>라 하고 氣血者는 人之神也<sup>9)</sup>라 하였으니 善夫라

52) “諸浮諸緊諸沈諸弦諸遲諸澁, 若在寸口, 高以上病, 在關中, 胃以下病, 在寸內, 臍以下病.”

#### 【校勘】

1) 脈貴有神: 本篇은 본래 李東垣의 제자인 王好古의 「此事難知·脈當有神」을 引用한 것이다.<sup>53)</sup> 蔣劉本에는 本篇을 따로 分離하지 않고 前篇 末尾에 붙였고, 周本에는 없다. 「此事難知」의 原文을 참고로 제시하면, “脈之不病, 其神不言, 當自有也. 脈既病, 當求其中, 神之有與無焉. 謂 如六數七極, 熱也, 脈中有力, 卽有神也. 三遲二敗, 寒也, 脈中有力, 卽有神也. 熱則有神, 當泄其熱, 則神在焉. 寒熱之脈, 無力無神, 將何藥而泄熱去寒乎. 苟不知此, 而遽泄去之, 將何依以生. 所以十亡八九. 故「經」曰: 脈者, 血氣之先; 又云: 血氣者, 人之神, 可以不謹養乎, 不可不察其有無乎.”라고 되어 있다.

2) 前: 蔣劉本에는 ‘上’으로 되어 있다.

3) 神: 蔣劉本에는 뒤에 ‘也’字가 있다.

4) 耶: 蔣劉本에는 ‘邪’로 되어 있는데, ‘邪’는 ‘耶’의 本字이다.

5) 人: 蔣劉本에는 ‘神’으로 되어 있다.

6) 以: 蔣劉本에는 ‘所’로 되어 있다.

7) 經: 「內藏經」卷上 「脈要論 第十」이다.

8) 也: 蔣劉本에는 없다.

9) 氣血者人之神也: 『素問·八正神命論篇』에 “氣血者, 人之神, 不可不謹養.”이라고 되어 있다.

#### 【註釋】

(1) 東垣(동원): 李杲, 1180~1251년. 金代 저명한 醫家로서 金元四大家 중 한 사람이다. 字는 明之, 自號는 東垣老人이며, 眞定(지금의 河北 正定) 사람이다. 名醫 張元素를 스승으로 섬겨 學術에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 東垣云: 李東垣이 言及한 내용이지만 王好古의 「此事難知」 이외에는 그 根據를 찾을 수 없다. 아

53) “脈之不病, 其神不言, 當自有也. 脈既病, 當求其中, 神之有與無焉. 謂 如六數七極, 熱也, 脈中有力, 卽有神也. 三遲二敗, 寒也, 脈中有力, 卽有神也. 熱則有神, 當泄其熱, 則神在焉. 寒熱之脈, 無力無神, 將何藥而泄熱去寒乎. 苟不知此, 而遽泄去之, 將何依以生. 所以十亡八九. 故「經」曰: 脈者, 血氣之先; 又云: 血氣者, 人之神, 可以不謹養乎, 不可不察其有無乎.”

王好古; 此事難知,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91, p.297

마도 王好古가 그 스승인 李杲의 학술 내용을 그대로 옮겨둔 내용인 것 같다.

- (3) 求; 覓也, 찾을 구
- (4) 極(극); 疾脈<sup>54)</sup>
- (5) 泄; 除去, 없앨 설
- (6) 并; 竝과 같다. 皆也, 다 병. 偕也, 함께 병
- (7) 主; 守也, 지킬 주

【國譯】

『東垣十種醫書』의 『此事難知』에 말하기를, 病들이 많은 脈은 神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神이 있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病脈이 있다면 마땅히 그 神의 有無를 구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예로 一呼吸에 6번 뛰는 數脈과 7번 뛰는 極脈은 熱證이나 脈의 中部에 이 ‘中’ 字는 浮·中·沈의 中이다. 힘이 있으면 胃氣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곧 神이 있는 것이니 그 熱邪를 없애야 한다. 一呼吸에 3번 뛰는 遲脈, 2번 뛰는 敗脈은 寒證이나 脈의 中部에 힘이 있으면 說明은 모두 앞과 같다. 곧 神이 있는 것이니 그 寒邪를 제거해야 한다. 만약 數·極·遲·敗脈 가운데 또한 힘이 없으면 神이 없는 것이니 장차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진실로 이러한 것을 모르고 급히 없애고 제거하면 그 사람은 장차 무엇을 의지하여 자신을 지키겠는가? 그러므로 『中藏經·脈要論』에 이르기를 “脈의 形成은 氣血이 먼저 運行해야 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素問·八正神命論篇』에 “氣血은 사람의 神이다.”고 하였으니 매우 타당한 말이다.

【考察】

脈에 神의 有無는 곧 胃氣와 밀접하다. 먼저 胃氣에 대해서는 『素問·玉機眞藏論篇』에 먼저 나오는데 “五臟은 모두 氣를 胃에서 받으니 胃는 五臟의 根本이 된다. 藏氣는 스스로 手太陰에 도달할 수 없고 반드시 胃氣의 助力을 받아야 곧 手太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五臟이 각각 主時하는 季節에 스스로

手太陰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邪氣가 이긴 것은 精氣가 衰殘한 것이다. 그러므로 病이 심한 것은 胃氣와 함께 手太陰에 이를 수 없으므로 眞藏의 氣만 홀로 나타나고 眞藏의 氣만 홀로 나타나면 病이 臟을 勝克하므로, 죽는다고 말한다.<sup>55)</sup>”고 하였고, 『醫學入門』 「診脈·總看三部脈法」의 “四時의 脈에 胃氣로 根本을 삼는다.<sup>56)</sup>”는 것을 註釋하면서, “胃氣는 中氣이나 大하거나 細하지도 長하거나 短하지도 浮하거나 沈하지도 滑하거나 瀯하지 않으며 손에 感應되는 것이 중간 정도로 和緩하며 상황이 생기발랄하여 이름이나 形狀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胃氣가 있으면 脈에 힘이 있고 神이 있으며 胃氣가 없으면 脈에 힘이 없고 神도 없으니 神은 곧 胃氣이다. 男子에 있어서 좌측 손의 脈이 重厚하고 氣口脈이 和緩하며, 女子에 있어서 우측 손의 脈이 重厚하고 人迎脈이 和緩한 것도 胃氣가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浮에서 腑를 取하고 沈에서 臟을 取하며 中에서 胃氣를 取하는 것에만 泥執하고 中 가운데 참으로 中이 있는 것을 모른다. 浮 가운데도 中이 있고 沈 가운데도 中이 있으므로 脈의 形狀에만 泥執하지 말고 당연히 脈의 神을 구하여야 하니 神은 곧 脈에 힘이 있는 것이다.<sup>57)</sup>”고 하여 胃氣는 中氣로 어느 한쪽 성질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胃氣가 있다는 것은 힘이 있고 神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胃氣의 男女 差異를 指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꼭 胃氣를 中取해서 잡아야 한다는 기존 說에 固執하지 말고 힘이 있거나 神이 있

55) “五藏者, 皆稟氣於胃, 胃者五藏之本也. 藏氣者, 不能自致於手太陰, 必因於胃氣, 乃至於手太陰也. 故五藏各以其時自爲, 而至於手太陰也. 故邪氣勝者, 精氣衰也. 故病甚者, 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 故眞藏之氣獨見, 獨見者, 病勝藏也, 故曰死.”  
王冰;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p.179

56) “四時胃氣爲之本.” 『素問·平人氣象論篇』의 내용을 요약한 글로 보인다.

李梴;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438

57) “胃氣者, 中氣也, 不大不細, 不長不短, 不浮不沈, 不滑不瀯, 應手中和, 意思欣欣, 難以名狀者, 是也. 有胃氣則脈有力有神, 無胃氣則脈無力無神, 神即胃氣也. 男子, 左手重而氣口脈, 和, 女子, 右手重而人迎脈, 和, 亦爲有胃氣. 今人, 泥以浮取腑沈取臟, 中取胃氣, 而不知中國中也. 浮之中, 亦有中也, 沈之中, 亦有中也, 不當泥其形, 而當求其神也, 神即有力也.”

李梴;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439

54) 天字傳統文化研究所 동의학연구실; 新編中國醫學大辭典, 謝觀編著, 여강출판사, 서울, 2001, p.290

는 것이 곧 胃氣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主張하여 『玉機眞藏論篇』의 說明을 더욱 眞實보시켰다고 할 수 있다. 本篇의 脈의 神에 대한 說明이 미흡한 부분은 『醫學入門』의 이러한 說明을 참고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 같다.

氣口는 양쪽 요골동맥의 診脈 部位로 이곳의 脈象으로 五臟六腑의 變化를 살핀다. 이곳의 脈象 變化는 胃의 變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는 現代 醫學적으로 증명되니 『이우주의약리학강의』에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그 종류나 양에 따라 위액이 분비되고, 위액의 분비에 따라 위에 분포하고 있는 미주신경이 직접적인 첫 번째 자극을 받아 흥분하였을 경우를 예로 든다면 acetylcholine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acetylcholine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심근수축력, 특히 심방의 수축력을 감소시키며 심장내 자극 전도를 억제하므로 심박출량이 감소된다. 또한 혈관의 확장을 일으켜 혈압이 하강하게 된다. 평활근장기에 대해서는 위 및 장운동을 항진시키고 기관지근도 수축시킨다. 수뇨관 및 방광의 압박근의 수축도 강력하게 하여 배뇨를 촉진시킨다. 분비선에 대해서는 침, 눈물 및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땀 분비도 항진시킨다.”<sup>58)</sup>고 하였으니 飲食物을 攝取하면 胃에 간직되어 五臟의 氣를 기르므로 五臟六腑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나오고 이것이 변하여 氣口에 나타난다고 한 말과 상통된다.<sup>59)</sup>

## 跋文

### 【原文】

按건대 前之樞要及統會二者는 脈病之詳과 與會通(1)之義矣라 復合二韻語(2)者면 蓋欲其後先相紹(3)하고 詳略相因하여 學之者가 易曉也<sup>1)</sup>라 諸脈도 亦統之면 有宗歟라 蓋以相爲對待者以見하면 曰陰曰陽이요 爲表

爲裏니 不必斷斷(4)然七表八裏九道를 如昔人云云也라 觀素問仲景(5)書中論脈處면 尤可見取象之義라 今之爲脈者가 能以是觀之면 思過半矣리라 於呼라 脈之道大矣나 而欲以是該之면 不幾(6)于舉一漏(7)百(7)歟니 殊不知至微者理也요 至著者象也라 體用一源이나 顯微無間이라 得其理則象可得而推矣라 是이 脈也니 求之於陰陽對待統系之間則啓源而達流하고 因此而識彼하여 無遺策(8)矣니라

至正 己亥(9) 首夏(10) 二日에 許昌 滑壽 伯仁은 誌(11)하노라

### 【校勘】

- 1) 按前之樞要, ……; 易曉也; 蔣劉本에는 없다.
- 2) 漏; 蔣劉本에는 ‘而廢’로 되어 있다.

### 【註釋】

- (1) 會通(회통); 圓히 알다. 正통하다.
- (2) 韻語(운어); 押韻의 語句
- (3) 紹; 繫也, 이을 소
- (4) 斷斷(단단); 誠實하고 專一한 모양, 專一하여 변하지 않는 모양
- (5) 仲景(중경); 張機
- (6) 幾; 近也, 가까울 기
- (7) 舉一漏百(거일누백); 한 가지 예를 들어 백 가지를 빠뜨리는 실수를 한다.
- (8) 遺策(유책); 실책, 실수
- (9) 己亥(기해); 1359년. 元 나라 至正 19년
- (10) 首夏(수하); 陰曆 四月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또 초여름, 孟夏, 初夏를 가리키기도 한다.
- (11) 誌; 與識同, 적을 지

### 【國譯】

詳考하건대 앞의 樞要和 統會 두 가지는 脈과 病의 詳細함과 會通의 뜻이다. 두 韻語를 다시 합해 보면 대개 그 先後를 서로 이어지고 詳細함과 簡略함을 서로 이끌어서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쉽게 깨닫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모든 脈도 統括(統)하면 根本

58) 홍사석; 이우주의약리학강의, 선일문화사, 서울, 1987, p.139

59) 柳太植·琴桐樹; 五藏別論,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2001, p.157

(宗)이 있다. 대개 서로 對待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 陰과 陽이라 하고 表와 裏가 되는 것이니 옛 사람들이 말한 七表·八裏·九道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素問』과 仲景의 책 속에서 脈을論한 곳을 보면 더욱 脈象을 취한 그 뜻을 알 수 있다. 지금 脈을 잡는 사람이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면 생각이 반은 넘은 것이다. 자! 脈의 道가 크나 이로써 다 갖추고자 하면 하나를 예로 들어 百 가지를 빠뜨리는 실수가 거의 없을 것이니 특히나 지극히 精微한 것은 理이고 지극히 顯著한 것은 象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體와 用은 根源이 하나니 顯著한 것과 精微한 것은 다를 것이 없다. 그 理致를 알면 그 象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脈이니 陰과 陽이 對待하는 系統 사이에서 구하면 根源을 啓發하고 末流를 通達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을 알게 되니 失策이 없을 것이다.

至正 己亥年 四月 二日에 許昌의 滑壽 伯仁이 삼가 쓰노라.

## V. 結 論

### 攬寧生自序

滑壽는 元代 戴啓宗과 明代 李時珍과 같이 당시 『脈經』보다 범용되던 高陽生의 『脈訣』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특히 七表·八裏·九道를 批判하면서 脈에는 陰陽의 對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 第1篇 樞要玄言

人體의 脈象은 體質·年齡·環境 등에 따라 千差萬別하므로 『脈經』을 비롯한 『醫學入門』 및 『診家樞要』에서 男女 脈象의 차이를 논한 것은 하나의 標準일 뿐 一定不變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四診을 모두 종합해야 한다.

### 第2篇 左右手配臟腑部位

寸·關·尺 三部의 左右 相克과 臟腑經脈의 配屬關係는 『素問·脈要精微論篇』과 『難經·十八難』에서 그 효시를 이루고 『脈經』은 이 理論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左右 寸關尺에 臟腑를 配屬하였는데 『脈經』 卷一 「分別三關境界脈候所主 第三」과 「兩手六脈所主五藏六腑陰陽逆順 第七」 등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 第3篇 五臟

本篇의 典據는 찾을 수 없다. 다만 五臟의 正常脈에 대하여 『素問』의 「平人氣象論」과 「玉機眞藏論」, 『難經·四難』 등에서 비롯되었다.

心肺의 正常脈에 散脈을 띄는데, 散脈은 본래 死脈이다. 다만 心은 浮大한 가운데 濡를 띠고 肺는 浮瀼한 가운데 大를 띠어 散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眞散脈이 나타난다면 平常脈이 아닌 것이다.

菽을 이용한 方法은 『難經』에서 비롯되고 『傷寒論』과 『脈經』에도 인용하는데, 指力 輕重의 菽重은 콩(豆)이나 팥(小豆)으로 보는 것보다는 16黍가 1豆, 6豆가 1銖인 度量衡 單位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옳을 것 같다.

### 第4篇 四時平脈

四時의 正常脈에 관해서는 『素問』의 「玉機眞藏論」과 「平人氣象論」, 『難經·十五難」, 『脈經』 卷三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第5篇 內經三部脈法

本篇은 역대 醫家들의 說이 분분하여 많은 논란거

리가 있다. 첫째 診脈의 대상 부위가 寸關尺의 寸口脈에 한하는가 아니면 寸口脈을 포함하여 肘關節까지의 尺膚를 上中下 三段으로 나눠 診察하는 法으로 說明하는가이다. 둘째 内外의 문제로, 寸口에서 小指側을 內, 拇指側을 外로 보느냐, 尺膚에서 小指側을 內, 拇指側을 外로 보느냐, 寸關尺 각 部位마다 손바닥 쪽 前半部를 外, 팔꿈치 쪽 後半部를 內로 보느냐, 浮取를 外, 沈取를 內라고 보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셋째 前後의 문제도 여러 가지 說이 있는데, 左手를 前, 右手를 後로 보느냐, 關前의 寸部를 前, 關後의 尺部를 後로 보느냐, 上半部를 前, 下半部를 後라고 보느냐, 尺膚에서 陽經이 흐르는 바깥쪽을 後, 陰經이 흐르는 안쪽을 前이라고 보는 등이다.

이렇듯 그 異論이 다양하여 누구의 說明이 타당한지는 알기 어렵다.

### 第8篇 三部所主 九候附

本篇은 寸關尺의 三部九候를 설명하는 것으로 앞의 『素問·三部九候論篇』에서 三部나 九候의 名稱이 나오면서 頭(上)·手(中)·足(下)의 搏動處를 모두 이용하는 遍診法과 다르다.

滑壽는 「二難」과 「十八難」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寸·關·尺 三部에 대한 설명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浮·中·沈에 따라 皮膚·肌肉·筋骨 순으로 病의 깊이를 말하고 表裏·臟腑·胃氣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점에서 「二難」과 「十八難」을 더욱 발전시킨 說明이라고 볼 수 있다.

### 第9篇 脈貴有神

脈에 神의 有無는 곧 胃氣와 밀접하다.

現代醫學에서 음식물 소화와 관련하여 부교감신경의 acetylcholine의 약리적 변화로도 볼 수 있듯이, 氣口는 양쪽 요골동맥의 診脈 部位로 이곳의 脈象으로 五臟六腑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 參考文獻

1. 滑壽. 訂補名醫指掌附刻診家樞要. 正校名醫指掌. 上海廣益書局, 癸丑文化社, 上海, 中華民國 11年(1922年).
2. 滑壽. 診家樞要. 蔣力生·劉春援 校注. 歷代中醫名著文庫,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高文籌 主編, 華夏出版社, 北京, 1997.
3.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善本叢書.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4. 沈炎南. 脈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6. 王冰. 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7. 王冰.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8. 丹波元簡. 素問識·素問紹註·靈樞識·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9. 華佗. 中藏經.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10. 滑壽. 難經本義. 臺北, 集文書局, 1982.
11.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2. 尹錫烈. 金容辰. 難經研究集成. 大田, 주민출판사, 2002.
13. 李景榮.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4. 李景榮. 千金翼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15. 朴晔. 診斷學權輿. 서울, 大星醫學社, 2000.
16. 朴晔, 金興濟, 全鍾誥. 譯釋脈學輯要·脈語. 서울, 大星文化社, 1997.
17. 朴晔. 國譯類編脈學·四言學要·奇經八脈及附脈訣攷證.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8. 李旻. 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9. 高揚生. 王叔和脈訣. 欽定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四冊, 醫部彙考七十七, 脈法七. 서울, 大星文化社, 1986.
20. 李仲梓. 診家正眼. 北京, 中國書店, 1987.
21. 東醫寶鑑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鑑, 許浚 著, 法仁文化社, 서울, 1999.
22.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0.
23. 張介賓. 景岳全書·上, 大星文化社, 서울, 1988.
24. 周學海. 重訂診家直訣. 中國醫學大成, 曹炳章 原輯, 張琨 主校,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25. 鄧鐵濤. 中醫診斷學, 知音出版社, 臺北, 1989.
26. 洪元植·尹錫烈. 中國醫學史, 一中社, 서울, 2001.
27.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醫聖堂, 서울, 1987.
28.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2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益山, 2001.
30. 홍사석. 이우주의약리학강의, 선일문화사, 서울, 1987.
31.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1.
32. 成百萬·朴晔. 脈經 24種 이외의 常見主病脈, 大韓韓醫診斷學會誌, 第7卷1號, 서울, 2003.

33. 金憲; 脈經·診脈方法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2.
34. 양건일; 脈經·寸關尺 臟腑配屬과 陰陽病脈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2.
35. 羅慶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的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 參考辭典

1. 天字傳統文化研究所 동의학연구실; 新編中國醫學大辭典, 謝觀 編著, 여강출판사, 서울, 2001.
2. 傳統醫學研究所;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2.
3. 金賢濟·洪元植;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4.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95.
5.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1983.
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7.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2003.
8. 金元中; 虛詞辭典, 玄岩社, 서울, 1990.
9. 金榮華; 韓國俗字譜, 亞細亞文化社, 서울, 1986.
10. 作者未詳; 宋元以來俗字譜, 韓國學古典叢書, 亞細亞文化社, 서울, 1976.
11. 原一祥·任繼學·黃龍·高光謨; 漢英雙解中醫大辭典, 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